

아동의 동적 집-나무-사람(H-T-P) 그림 반응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김택호* · 배숙경

조선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 반응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총 2,309명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정서발달검사, 소아우울검사, K-HTP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 소아 우울척도의 우울점수가 22점 이상인 아동 173명을 선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서 나타난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고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Window19.0을 이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집 그림 반응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벽 그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나무 그림 반응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나무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수관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수관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사람 그림 반응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람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사람그림에서 입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 입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우는 표정의 그림이 웃는 표정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넷째, 전체 그림 반응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밀착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어떠한 형태든 밀착관계를 보이는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요어 :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K-HTP, 그림반응특성, 아동우울

* 교신저자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부 조교수(E-mail : kimtackho@hanmail.ac.kr)

I. 서론

우울은 ‘감기’와 비교될 정도로 흔한 정신병리 증상이나(Rosenhan & Seligman, 1995), 심각한 경우 여러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정신장애 진단체계인 DSM-IV-TR(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TR-Edition, APA, 2000)에 나타난 우울증의 주요 특징은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우울장애는 우울감, 흥미의 상실과 같은 정서적 증상, 죄책감, 무기력감, 무가치감, 자살사고와 같은 인지적 증상, 피로, 신체적 초조 등의 행동적 증상을 동반한다(Merikangas, Lieb, Wittchen, & Avenevoli, 2003).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Freud의 정신분석적 접근에 의하면 대부분의 우울증세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행동주의적 접근에 의하면 우울증은 강화물의 상실이나 반응의 소거로 인해 일어난다고 보며, 다른 연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본다(Hammen, 2005). 이 외에도 사랑하는 이의 상실, 중요하고 가까운 관계가 깨어질 위협, 직업의 상실, 상당한 경제적 문제나 심각한 건강문제 등도 우울증의 촉발과 관련이 있다(Monroe & Hadjiyannakis, 2002).

아동의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과는 달리, 명확한 우울감이나 생리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행동화, 과잉행동, 파괴성·공격성 비행, 또래관계문제, 무단결석, 등교거부, 가출, 성적저하, 신체 증상, 분노발작, 공포증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민성길, 2007). 또한 우울증의 부수적인 증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사춘기 이전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매달림, 학교 공포, 자신 또는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등, 분리불안이 있을 수 있고, 철회, 울기, 눈 맞춤의 회피, 신체적 불평, 낮은 식욕,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자살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Pfeffer, 1996).

오경자와 이혜련(1990)은 아동기의 우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우울한 아동은 슬픔보다 더 과장되고 지속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흥분하기 쉬우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둘째, 그들은 침착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천천히 행동하고 느리게 말하고 때때로 심하게 울기도 한다. 빈정거림이나 소리침, 파괴와 같은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우울을 표현하기도 한다. 셋째, 우울한 아동들은 무가치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한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학업수행을 고통스러워한다. 넷째, 사고가 느려지고 왜곡되며 주의집중과 기억,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 다섯째, 그들은 식욕이 없고 항상 피곤해 하며, 두통, 위통 등의 신체 질환을 호소한다. 또한 배주미(2000)는 우울증을 경험하는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손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우울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남과

덜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친구가 없다고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자기비하, 대인 기피증 같은 부정적인 특징을 가진다(박은조, 2001).

아동기의 우울증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이후에 사회적 문제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andel & Davies, 1996). 즉, 아동기에 시작된 우울증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을 동반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성인기까지 반복되는 우울삽화를 보이는 등 나쁜 예후를 가진다. 우울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 우울증상뿐 아니라 학습 곤란이나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무기력증, 신체증상 등을 쉽게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무단결석, 가출이나 범죄 행동 등의 비행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신현균, 2006), 아동기에 발병된 우울증과 자살 행동 간에도 강한 연관성이 있다(배주미,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12%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문제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상황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을 통해 아동의 심리건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아동기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는 다르게 간접적이고 숨겨진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잠재되어 있는 형태로 우울이 표현되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아동기 우울은 조기에 발견하고 판별하여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울에 대한 검사들은 주로 정형화된 설문지법에 의한 것으로 피험자들의 조작성이 개입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술 등의 투사기법을 통한 평가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우울 아동들은 표현 능력이 낮기 때문에 문자나 언어를 통한 지시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한 표현이 보다 효과적이다.

1948년도에 Buck이개발한 HTP(House-Tree-Person)는 인간의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검사로 현재 임상 및 치료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투사검사 중 하나이다.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는 HTP는 기존의 그림검사로 흔히 쓰이던 단일과제의 인물화 검사보다 집-나무-사람을 그리게 하는 것이 피검자의 성격이해에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하였다. 모든 연령의 내담자가 그림의 대상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과제보다 솔직하고 자유스러운 언어표현을 시킬 수 있는 자극으로써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소재이며, 내담자가 비교적 솔직하고 자유롭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여 내면세계의 무의식을 드러내도록 해준다. 그림검사가 폭넓게 활용되고 연구되어지면서 검사에 대한 제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도 활발해졌다. Burn(1987)는 HT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HTP에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부여하여 동적 집-나무-사람(K-HTP)기법을 발전시켰다. 또한 K-HTP의 해석에 있어서도 Maslow의 발달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함께 고찰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투사그림에서의 표현양식들은 번스와 카우프만(Burns & Kaufman, 1972)에 의해서 처음으로 묘사되었고, 이러한 동적 그림 체계에서의 표현양식은 Burns 그리고 코프와 프라우트(Knoff & Prout, 1985)에 의해 최근 더욱 확장되고 자세히 묘사되었다.

HTP에 역동성을 도입시킨 동적-집-나무-사람은 HTP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K-HTP그림검사는 다른 투사검사에 비해 진행과정과 반응시간이 비교적 짧고 1장의 용지에 3가지 과제를 그림으로써 간편하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적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三上直子, 1999).

K-HTP는 한 장의 종이에 집, 나무, 사람을 한 번에 그리게 한 뒤 전체적인 평가와 집-나무-사람 각각의 과제를 평가하여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다(三上直子, 1999). 즉 조화가 잘된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크기의 균형, 원근감, 집과 나무와 사람의 관계형성이나 그것들을 연결하는 부가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현실검증력이나 과제에 임하는 집중력, 지속성, 적극성, 유연성, 창조성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최경순, 2008). K-HTP 그림검사는 언어적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Rorschach나 TAT등의 다른 투사적 검사에 비해 언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들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아동 스스로 그림 반응을 하는 것이므로 무의식적인 성격의 심층구조를 파헤치면서 성격의 역동이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교사, 치료자가 아닌 아동 개인이 스스로 다양한 표현반응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성격을 고찰하며 성격의 징후들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서 행동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동적인 관계를 밝히기에 유용한 방법이다(황승영, 2002).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림검사는 그 채점 및 해석, 그리고 예언의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검사란 미래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언해야만 한다고 가정하여, 투사검사는 예언에 있어 오차가 발견되어 진다는 이유로 배척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 고조되어 왔으며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K-HTP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보고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관련연구가 적은 편이다.

K-HTP에 관한 국내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도시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성불안과 K-HTP 반응특성(김동연, 최외선 1997), 환경변인에 따른 도시여성의 K-HTP에 의한 그림 반응특성(최외선, 백양희, 1997),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K-HTP의 반응특성(김동연, 백양희, 장영숙, 1997), 비행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HTP 반응특성(김동연, 오영환, 1997)등 에 관한 연구가 있다. 문혜숙(1998)은 청소년의 EQ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활동의 효과검증을 위해 K-HTP를 사용하였고, 김미영(2000)은 집단 활동이 아동의 우울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K-HTP를 사용하였으며, 박애라(2002)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집단미술활동을 통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K-HTP를 사용하였다. 박영신(2002)이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자기표현훈련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K-HTP를 사용하여 자기 인식 및 조절, 자기표현 능력향상, 정서적 안정, 타인과의 관계 형성,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검증하였다. 재가노인의 우울 및 K-HTP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최외선, 오미나, 2002)에서는 문과 창문이 나타나지 않은 집단이 나타난 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았고, 나뭇가지가 없는 집단이 나무와 가지가 조화로운 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발이 생략되거나 1/4미만인 경우와, 손이 생략되거나 1/4미만인 경우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 장식성의 경우 장식성이 없는 집단이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여백처리가 적당하고 그림이 조화로운 집단이 우울수준이 낮고 부적당한 집단이 우울수준이 높았다. 박경화(2002)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발달경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를 통하여 K-HTP가 아동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학년별, 성별에 따라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김미숙(2008)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집-나무-사람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기에 우울성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우울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써 유용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우울과 그림검사 반응특성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울수준에 따른 DAS(Draw-A-Story)검사의 반응 특성연구(강희숙, 2011), 아동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과 DAS 반응 특성의 관계(송현숙, 2008), 아동의 우울과 DAS검사반응 특성연구(문영희, 2007)가 있다. 강정화(2007)는 아동의 우울감과 S-HTP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과 비우울집단간 S-HTP 그림검사에서 차이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연구들은 우울과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나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우울을 낮추는데 그 초점이 있고, 우울과 그림검사의 반응특성은 여성의 불안이나 자아정체감, 비행청소년과 우울노인의 반응 특성, 또는 아동우울과 사람그림을 살펴본 연구이거나, 재가노인우울과 시설노인 우울의 반응특성 차이를 살펴보는 등의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척도의 우울점수가 22점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K-HTP 그림검사의 반응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K-HTP 그림검사가 아동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측정도구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K-HTP 그림검사의 반응특성과 아동 우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집 그림 반응특성에 따라 아동 우울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아동의 나무 그림 반응특성에 따라 아동 우울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셋째, 아동의 사람 그림 반응특성에 따라 아동 우울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넷째, 아동의 전체 그림 반응특성에 따라 아동 우울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G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과 협력하여 5개구, 총 150개 지역아동센터의 2,309명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아동 중 소아우울검사에서 우울점수가 22점 이상 나온 아동 173명(남자 101명, 여자 72명)을 대상으로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 반응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동들의 연령은 7세부터 16세로 평균연령은 11세이다. 한편 아동의 우울점수를 22점~25점(경미한 우울), 26점~28점(중증도 우울), 29점 이상(심한우울)의 3단계 점수별로 분류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자의 분포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우울점수에 따른 대상아동 현황(N=173)

우울 점수	아동수 (비율)	성별/아동수/(비율)	평균 연령대
22~25점 (경미한 우울)	95명 (53.9)	남-61명 (35.3) 여-34명 (19.7)	11세
26~28점 (중증도 우울)	41명 (23.7)	남-20명 (11.6) 여-21명 (12.1)	11세
29점 이상 (심한우울)	37명 (21.4)	남-20명 (11.6) 여-17명 (9.8)	10세
계	173 (100.0)	남-101명 (58.4) 여-72명 (41.6)	

2. 연구도구

1) 소아우울척도(CDI)

아동용 우울검사인 CDI검사는 Rush, Kovacs와 Beck(1977)이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 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써, 이것은 Beck의 우울척도(1967)인 성인용 우울척도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 도구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증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증 평가 척도로써 8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다.

CDI검사는 27개의 문항으로 문항을 잘 읽고 피검자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적합 하게 표현하는 문장을 하나만 골라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한 가지 문항 당 세 가지 서술문이 제시되어 있고 지난 2주간의 상태를 0~2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한유진(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 이었고, 옥정(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CDI검사의 하위종류에 따른 문항은 표2와 같다.

표 2. CDI 검사의 하위 요인과 문항번호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부정적 자기상 (12문항)	2, 3, 5, 8, 11, 12, 14, 22, 23, 25, 26, 27
대인관계 (7문항)	4, 7, 13, 19, 20, 21, 24
기분, 신체증상 (8문항)	1, 6, 9, 10, 15, 16, 17, 18

2)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K-HTP그림검사는 집-나무-사람 3가지 과제를 한 장의 종이에 그리게 하여 집-나무-사람을 어떻게 관련지어 그렸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관계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유롭게 조합하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쉬운 검사법이다(三上直子, 1999). K-HTP그림검사의 해석 기준은 김동연, 최외선, 공마리아(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지표와 최외선, 오미나(2002)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측정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 이용된 K-HTP 그림에 있어서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은 다음 표3 항목과 같다.

표 3. K-HTP 그림검사 반응 특성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

그림종류	분석항목	평가기준
집 그림	지면 위치	상단, 중심, 하단
	그림 크기	상, 중, 하
	지붕/벽/문/창문	유, 무
	굴뚝/ 연기	유, 무
나무 그림	줄기/가지/수관	유, 무

표 3. 계속

사람 그림	머리/눈/코/입	유, 무
	얼굴 표정	무표정, 웃는 표정, 우는 표정, 화난표정, 놀란 표정, 표정표현없음
	목/몸통/팔/다리	유, 무
	손/발	유, 무
전체 그림	밀착관계	HT / HP / PT HTP 밀착 없음
	조화관계	조화 부조화
	크기순서	HTP / THP / PTH HPT / TPH / PHT
	날씨	해 / 해+구름 구름+비 / 구름 표현 없음

3. 자료 분석

K-HTP 그림의 반응 특성 분석은 표3에 제시된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자를 포함한 채점자 2인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채점자는 미술치료평가 및 방법에 대한 7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미술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였으며, 연구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받았다.

K-HTP 그림의 반응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그림 반응 특성, 나무그림 반응특성, 사람그림 반응 특성, 전체그림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집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집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여 표4에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집 그림의 지면위치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952, p<.01$). 이러한 평균차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벽 그림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2.859, p<.001$). 즉, 그림에서 벽을 그리지 않은 경우 벽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집 그림의 크기, 지붕, 문, 창문, 굴뚝과 연기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집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항 목	평가기준	우울점수	F 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 $p<.05$)
		평균 (표준편차)		
집 그림의 지면위치	지면 상단 (N=32)	25.78 (3.80)	$F=4.952$ $p=.003$	집없음>상단=중심 집없음=하단 상단=중심=하단
	지면 중심 (N=57)	26.14 (3.93)		
	지면 하단 (N=81)	26.84 (5.00)		
	집 없음 (N=3)	36.33 (13.32)		
집 그림의 크기	작은 크기 (N=50)	25.98 (4.02)	$F=1.741$ $p=.178$	
	보통 크기 (N=91)	26.97 (5.04)		
	큰 크기 (N=29)	25.38 (2.64)		
지붕 유·무	있음 (N=149)	26.43 (4.62)	$F=1.022$ $p=.314$	
	없음 (N=24)	27.50 (5.93)		
벽 유·무	있음 (N=159)	26.20 (4.37)	$F=12.859$ $p=.000$	
	없음 (N=14)	30.86 (7.28)		
문 유·무	있음 (N=140)	26.34 (4.50)	$F=1.868$ $p=.173$	
	없음 (N=33)	27.61 (5.94)		
창문 유·무	있음 (N=143)	26.29 (4.47)	$F=2.907$ $p=.090$	
	없음 (N=30)	27.93 (6.12)		
굴뚝과 연기 유·무	있음 (N=46)	26.20 (4.11)	$F=.394$ $p=.531$	
	없음 (N=127)	26.72 (5.05)		

2. 나무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나무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여 표5에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나무 그림의 지면위치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461, p<.01$). 이러한 평균차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나무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수관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8.589$, $p<.01$). 즉, 그림에서 수관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수관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열매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F=3.531$, $p=.062$).

나무 그림의 크기, 줄기, 가지, 뿌리, 꽃, 잎, 웅이구멍, 나무껍질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나무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항 목	평가기준	우울점수	F 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 $p<.05$)
		평균 (표준편차)		
나무 그림의 지면위치	지면 상단 (N=20)	26.15 (4.58)	$F=4.461$ $p=.005$	나무없음>상단
	지면 중심 (N=75)	25.89 (3.66)		나무없음>중심
	지면 하단 (N=72)	26.88 (5.17)		나무없음>하단
	나무 없음 (N=6)	33.00 (9.06)		상단=중심=하단
나무 그림의 크기	작은 크기 (N=41)	26.71 (4.39)	$F=.178$ $p=.837$	
	보통 크기 (N=96)	26.25 (4.75)		
	큰 크기 (N=30)	26.17 (3.71)		
줄기 유·무	있음 (N=167)	26.35 (4.47)		
	없음 (N=0)	0.00 (0.00)		
가지 유·무	있음 (N=106)	26.24 (4.18)	$F=.179$ $p=.673$	
	없음 (N=61)	26.54 (4.98)		
수관 유·무	있음 (N=150)	26.01 (3.98)	$F=8.589$ $p=.004$	
	없음 (N=17)	29.29 (7.06)		
뿌리 유·무	있음 (N=22)	26.59 (4.32)	$F=.075$ $p=.785$	
	없음 (N=145)	26.31 (4.51)		
꽃 유·무	있음 (N=8)	26.75 (4.40)	$F=.068$ $p=.795$	
	없음 (N=159)	26.33 (4.49)		
열매 유·무	있음 (N=38)	25.16 (2.67)	$F=3.531$ $p=.062$	
	없음 (N=129)	26.70 (4.83)		
잎 유·무	있음 (N=18)	26.28 (3.32)	$F=.005$ $p=.945$	
	없음 (N=149)	26.35 (4.60)		
웅이구멍 유·무	있음 (N=52)	26.12 (3.95)	$F=.202$ $p=.654$	
	없음 (N=115)	26.45 (4.70)		
나무껍질 유·무	있음 (N=11)	26.00 (4.07)	$F=.071$ $p=.791$	
	없음 (N=156)	26.37 (4.51)		

3. 사람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사람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여 표6에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람 그림의 지면위치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499$, $p<.001$). 이러한 평균차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람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입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738$, $p<.05$). 즉, 사람그림에서 입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 입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얼굴표정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709$, $p<.001$). 이러한 평균차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우는 표정의 그림이 웃는 표정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사람그림의 크기, 머리, 눈, 코, 목, 몸통, 팔, 다리, 손, 발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사람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항 목	평가기준	우울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 $p<.05$)
사람 그림의 지면위치	지면 상단 (N=17)	25.94 (3.33)	$F=6.498$ $p=.000$	사람없음>상단
	지면 중심 (N=57)	26.83 (4.66)		사람없음>중심
	지면 하단 (N=107)	26.25 (4.52)		사람없음>하단
	사람 없음 (N=3)	38.00 (11.36)		상단=중심=하단
사람 그림의 크기	작은 크기 (N=79)	26.51 (4.32)	$F=.396$ $p=.673$	
	보통 크기 (N=75)	26.44 (4.85)		
	큰 크기 (N=16)	25.44 (2.83)		
머리 유·무	있음 (N=170)	26.38 (4.44)	$F=.661$ $p=.417$	
	없음 (N=0)	0.00 (0.00)		
눈 유·무	있음 (N=163)	26.32 (4.48)	$F=.508$ $p=.477$	
	없음 (N=7)	27.71 (3.55)		
코 유·무	있음 (N=50)	26.00 (3.42)	$F=4.738$ $p=.031$	
	없음 (N=120)	26.53 (4.81)		
입 유·무	있음 (N=155)	26.15 (4.34)	$p=.031$	
	없음 (N=15)	28.73 (4.96)		

표 6. 계속

얼굴표정 유·무	무표정 (N=27)	27.04 (4.12)	$F=4.709$ $p=.000$	우는표정>웃는표정 우는=무표정=화난= 놀란=표현없음 웃는=무표정=화난= 놀란=표현없음
	웃는표정 (N=103)	25.44 (3.53)		
	우는표정 (N=4)	32.75 (7.89)		
	화난표정 (N=11)	29.36 (7.75)		
	놀란표정 (N=12)	25.92 (3.70)		
	표정표현 없음 (N=13)	28.38 (4.66)		
목 유·무	있음 (N=88)	26.53 (4.14)	$F=.229$	
	없음 (N=82)	26.21 (4.76)	$p=.633$	
몸통 유·무	있음 (N=168)	26.36 (4.46)	$F=.269$	
	없음 (N=2)	28.00 (1.41)	$p=.604$	
팔 유·무	있음 (N=169)	26.37 (4.45)	$F=.202$	
	없음 (N=1)	27.00 (0.00)	$p=.888$	
다리 유·무	있음 (N=166)	26.43 (4.47)	$F=1.175$	
	없음 (N=4)	24.00 (2.45)	$p=.280$	
손 유·무	있음 (N=131)	26.18 (4.07)	$F=1.082$	
	없음 (N=39)	27.03 (5.53)	$p=.300$	
발 유·무	있음 (N=132)	26.18 (4.05)	$F=1.136$	
	없음 (N=115)	27.05 (5.60)	$p=.288$	

4. 전체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전체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여 표7에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밀착관계 유형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2.092$, $p<.001$). 이러한 평균차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방식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밀착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그림의 경우가 어떠한 형태든 밀착관계를 보이는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H-T-P의 그림이 서로 관련성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려지는 경우 우울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화형태, HTP의 크기순서, 날씨유형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 전체 그림 양식의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항 목	평가기준	우울점수	F 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 $p < .05$)
		평균 (표준편차)		
밀착관계	H-T (N=20)	27.05 (4.50)	$F=12.092$ $p=.000$	밀착없음>H-T
	H-P (N=31)	26.71 (4.58)		밀착없음>H-P
	P-T (N=33)	25.88 (3.61)		밀착없음>P-T
	H-T-P (N=3)	24.48 (2.78)		밀착없음>H-T-P
	밀착 없음 (N=21)	31.38 (5.74)		H-T=H-P=P-T=H-P-T
조화형태	조화 (N=32)	25.78 (3.90)	$F=.648$	
	부조화 (N=134)	26.49 (4.62)	$p=.422$	
크기순서	HTP (N=70)	27.27 (4.16)	$F=.494$ $p=.740$	
	THP (N=60)	26.82 (5.29)		
	PTH (N=8)	25.00 (3.66)		
	HPT (N=14)	26.50 (4.22)		
	TPH (N=14)	25.43 (2.90)		
	PHT (N=0)			
날씨유형	해 (N=12)	25.92 (3.82)	$F=1.737$ $p=.144$	
	해+구름 (N=25)	27.16 (4.85)		
	구름+비 (N=5)	29.60 (6.80)		
	구름 (N=29)	24.86 (3.00)		
	표현없음 (N=95)	26.48 (4.64)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 반응특성과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총 2,3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중 소아 우울척도의 우울점수가 22점 이상인 아동 173명을 선별하여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고, 집그림, 나무그림, 사람그림 반응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 그림에서 그림의 지면위치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집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벽 그림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림

에서 벽을 그리지 않은 경우 벽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집 그림의 크기, 지붕, 문, 창문, 굴뚝과 연기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집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경우와 집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벽을 그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울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우울정도에 따른 집 그림 반응 특성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집에 대한 갈등과 부정적인 정서가 있고, 가족이나 사회관계에서의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믿고 의지할만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울아 동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의 강도가 약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우울감과 S-HTP반응특성을 살펴본 강정화(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1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나무 그림에서 그림의 지면 위치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나무 그림이 없는 경우가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관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림에서 수관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수관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열매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나무 그림의 크기, 줄기, 가지, 뿌리, 꽃, 잎, 웅이구멍, 나무껍질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나무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경우와 나무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 줄기와 가지만 그리고 수관을 그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울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우울정도에 따른 나무 그림 반응특성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자기상에 대한 확신과 자아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S-HTP에 나타난 중학생 청소년의 우울성향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김미숙(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사람 그림에서 그림의 지면위치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람 그림이 없는 경우 지면의 상단, 중심, 하단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 유·무에 따른 우울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람 그림에서 입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 입을 그린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얼굴표정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는 표정의 그림이 웃는 표정의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람그림의 크기, 머리, 눈, 코, 목, 몸통, 팔, 다리, 손, 발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경우와 사람그림에서 입을 그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우는 표정의 그림일 경우에 우울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우울정도에 따른 사람 그림 반응 특성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현실에 대한 자기상이나 자기개념이 없고 부모나 형제, 또는 자신에

게 중요한 인물이나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울아동에서 흔히 보여지는 함묵증의 증상과 같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거부와 사회적 관계로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우울감과 S-HTP반응특성을 살펴본 강정화(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3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전체 그림에서 그림의 밀착관계 유형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밀착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그림의 경우가 어떠한 형태든 밀착관계를 보이는 그림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화형태, HTP의 크기순서, 날씨유형에 따른 우울점수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H-T-P의 그림이 서로 관련성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려지는 경우 우울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우울정도에 따른 전체 그림 반응특성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애착대상과 환경에 대한 상실감,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지며 이러한 상처로 인한 자기만의 고립감, 접촉의 결여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우울수준과 별-파도 그림검사의 반응특성을 살펴본 이승희(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은 아동의 우울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아동과 우울점수에 따른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반응특성 연구를 처음 시도함으로써 추후 후속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우울에 따른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반응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우울아동의 내면적 요소를 파악하고 우울아동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조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G광역시에 거주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한국아동의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제한점을 갖고 있다. 둘째, 그림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별 검사가 아닌 집단으로 실시한 점도 투사법 검사인 그림검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 검사실시를 통해 그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사검사로써 HTP, K-HTP, KFD 등의 그림검사는 오랫동안 많은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치료의 위한 진단검사로 활용되어오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진단을 위한 그림검사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 투사그림검사는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 심리를 읽어 내는 데 보다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같은 내용의 그림이라하더라도 내담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

가에 따라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상반될 수 있음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K-HTP도 마찬가지다. 아직 많은 연구가 부족한 탓에 선부른 진단은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우울아동의 변인별로 의미 있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도 단정적으로 우울성향을 결론내리기보다는 피검자와 그림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진단되어지고, 내담자와 치료자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활용될 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지금도 내담자들의 수수께끼 같은 그림들을 보며 그들의 내면을 알고 싶어 하는 분석가들에게 본 연구가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후 그림분석에 관한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정화 (2007). **아동의 우울감과 S-HTP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숙 (201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울수준에 따른 Draw-A-Story 검사의 그림 반응 특성 연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 백양희, 장영숙 (1997).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K-HTP의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4(1), 43-57.
- 김동연, 오영환 (1997). 비행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HTP 반응특성 연구. **미술치료연구**, 4(1), 1-24.
- 김동연, 최외선 (1997). 도시여성의 특성불안과 K-HTP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4(2), 93-106.
- 김동연, 최외선, 공마리아 (2002). **HTP와 K-HTP 심리진단법**. 대구: 동아문화사.
- 김미숙 (2008). **S-HTP검사에 나타난 중학생 청소년의 우울성향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0).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우울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희 (2007). **아동 우울과 Draw-A-Story검사 반응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숙 (1998). **집단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EQ 함양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성길 (2007).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박경화 (2002). **통합적 HTP검사 반응의 발달적 경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애라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집단 미술활동**.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2002). 인격교육 위한 학교·가정의 협력방안. **학교운영위원회. 통권25호** (2002. 4) 11-16.
- 박은조 (2001).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현숙 (2008). **부모양육태도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 (2006). 청소년의 신체증상 경험에서 부정적정서의 영향 및 정서표현과 자기개념의 중재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13-732.
- 오경자, 이혜련 (1990). **한국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연구 I: 4-5세, 6-11세, 12-16세**. 남아

- CBC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 (2010). 초등학교생의 우울수준과 별-파도 그림검사의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2008). 가출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S-HTP반응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 백양희 (1997). 환경변인에 따른 도시여성의 K-HTP에 의한 집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4(2), 107-122.
- 최외선, 오미나 (2002).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우울 및 K-HTP 반응특성 비교. *미술치료연구*, 9(2), 1-2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 의식 행태. 보건복지부.
- 한유진 (1993). 아동과 청소년의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승영 (2002). 아동들의 성격에 따른 나무 그림의 특성.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三上直子 미카미나오코. (1999). S-HTP法: 統合型 HTP法 による臨*床的發達の アプローチ. 東京: 書房.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TR-Edi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Author.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uck, J (1948). The H-T-P technique: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coring manua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 4-317.
- Burn, R. C. (1987). *Kinetic-house-tree-person drawings(K-H-T-P): interpretive manual*. New York : Brunner / Mazel.
- Burns, R. C., & Kaufman, S. H. (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KFD) : An interpretive manual*. New York : Brunner/Mazel.
- Hammen, C. (2005). Stress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293-319.
- Kandel, D.B., & Davies, M. (1996). High school students who use crack and other drug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71-80.
- Knoff, H. M. & Prout, H. T. (1985). *The Kinetic drawing system : Family and school*, Los Angeles, C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Merikangas, K. R., Lieb, R., Wittchen, H. U., & Avenevoli, S. (2003). Family and high-risk

- studied of social anxiety disorde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417), 28-37.
- Monroe, S. M., & Hadjiyannakis, H. (2002). *The social environment and depression: Focusing on severe life stress*. In I. H. Gotlib & C. L. Hammen (Eds.), *Handbook of depression* (pp. 314-340). New York: Guilford Press.
- Pfeffer, C. R. (1996). *Suicidal Behaviou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uses and Management*. In M. Lewis.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 Comprehensive Textbook*. Baltimore, USA: Williams and Wilkins.
- Rosenhan, D. L., & Seligman, M. E. P. (1995). *Abnormal Psychology*, 3rd ed. New York: Norton.
- Rush, A. J. Kovacs, M. Beck, A. T. (1977). Comparative efficacy of cognitive therapy and pharmacotherapy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utpati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7 - 37.

원고접수일 : 2013 년 10 월 15 일

수정제출일 : 2013 년 12 월 07 일

게재확정일 : 2013 년 12 월 17 일

The Relationship between Kinetic House-Tree-Person Respons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Kim, Tack-Ho · Bae, Suk-Kyung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onse characteristics of kinetic house-tree-person and depression. At First, we ran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test, childrens depression test, and K-HTP test for 2,309 children who belonged to regional children's center at G Metro-city and selected 173 children whose scores were greater than 22. We analyzed their response characteristics on dynamics of house-tree-person and utilized SPSS variance analysis for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their respons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sta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ictures without house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depression scores than those with low, middle, and high location of house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pictures without tree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ith trees which were located at the low, middle, high level on papers. In addition, showed that the pictures without person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depression than those with persons who were positioned at low, middle, high location on papers. And persons without lip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depression than those with lips. Sad face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depression than smiling faces. Finally, the pictures without intimate relationship showed statistically higher scores on depression than those with intimate relationship.

Key words : Kinetic House-Tree-Person test picture, K-HTP, Figure response characteristics Children's Depression